



군종주보

2024년 12월 15일(제1224호) 대림 제3주일(지신 주일)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대림 시기와 지신, 인권, 사회교리”

† 찬미 예수님!

지난 주일에는 대림 시기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죠. 12월 16일까지인 첫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재림(再臨)을 기다리고, 12월 17일부터인 둘째 부분은 보다 직접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차례대로 이어지는 인권 주일, 사회교리 주간, 자선 주일이 왜 대림 시기에 위치하는가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대림 시기 첫째 부분의 의미와 연결해서 설명했구요.

그렇다면 대림 시기 둘째 부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관관이 있습니다. 대림 시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지만, 결코 단절된 별개의 부분들이 아닙니다. 결국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미는 얼마든지 교차합니다. 모레 17일부터는 둘째 부분도 시작하기에, 그래서 오늘은 자선, 인권, 사회교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와 무슨 상관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 전통 중에는 ‘금줄’을 치는 민속문화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 경계에 솔잎, 숯, 고추 등을 매단 새끼줄을 칩니다. 이는 민속신앙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솔잎, 숯, 고추가 담고 있는 나름 합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솔잎, 숯, 고추는 모두 살균력이 있는 물질입니다. 갓난아기와 산모는 그 누구보다도 약한 존재입니다. 나쁜 물질이 가까이 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접근하는 것도 생존에 위협합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이나마 막아보기 위해 살균력이 있는 것들을 묶어 새끼줄로 방어벽을 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리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선, 인권, 사회교리도 그런 금줄과 같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지만, 분명 우리와 똑같은 약점과 한계를 지니고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은 매년 오지만, 매년 주님은 가장 어린 아기 모습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아기를 만나기 전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손을 씻고, 옷 먼지를 털고 다가가듯이, 우리에게 있는 오염과 먼지, 더러움을 씻고 털어내야겠죠. 그 오염과 먼지, 더러움은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 약한 이를 향한 배척, 말 못 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 등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루카 3,17) 아멘.



오정호(미키일) 신부
오뚜기(육군 제8기동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화답송 제 2 독 시 복음 본보송

스바 3,14-18ㄱ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필리 4,4-7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영성제송

루카 3,10-18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이홉 번째 시

박해 전에는 천주교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여, 사방의 많은 외인들 중에서 예비 신자들이 속출하였으므로 우리는 큰 위안을 받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저의 관할 구역에서만도 세례받을 준비가 된 등록된 예비 신자가 거의 1천 명에 이르렀을 정도입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주민 전체가 기도경문과 교리 문답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배우는지 서로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해로 인하여 모든 외교인들이 천주교를 박멸하기 위해 무장하게 되었고, 마을마다 천주교의 상습적 동조자들을 추방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인기는 뚝 떨어지고, 아직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은 실망하며, 많은 이들이 적어도 겉으로는 냉담자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굳세고 용맹하게 신앙을 지킨 교우들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 어린 젊은 과부나 처녀들은 더욱 큰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벌써 한 교우 과부가 외교인한테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감옥에 갇힌 젊은 부인 한 명과 처녀 한 명도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 여자들은 몸의 순결을 보존한 채 풀려났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교우 처녀들을 어쩔 수 없이 외교인들에게 정혼해 버렸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이미 외교인들에게 정혼해 버린 처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납치와 능욕의 위협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언급한 아가타에게 다음과 같이 허락할 수 있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즉 저는 아가타에게 비록 기적이 없이는 굶어 죽을 것이 뻔하지만, 어떤 동굴에 가 숨어서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가타는 이 허가를 받고서도 죽을 병에 걸리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또다시 강제로 추방된 다음, 저와 떨어져서 다른 구원의 피난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조씨 성을 가진 양반이요, 학자요, 상당한 부자인 가족이 자기 가문의 여러 후손들과 더불어 입교하기로 결심하고, 가옥과 모든 것을 팔고 나서 출생지인 고향을 떠나 십여 일 전에 교우촌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포졸들한테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또 포졸들이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창주교구 양입교회시인구소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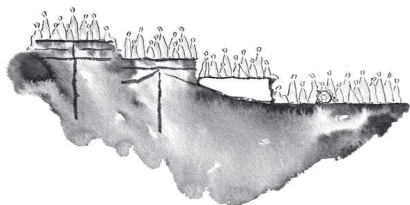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평화를 찾는 사람들



평화를, 사랑을.
안고,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허상만을 찾아 사는 사람들.

그 안에 나도.
잠시 머물러,
내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평화를, 사랑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성화이야기

세례자 요한



카를로 크리벨리가 1476년도에 이탈리아 아스콜리 피체노시의 성 도미니코 성당의 대제단을 위해 제작한 제단화의 일부로, 러시아의 부호에게 조각내서 팔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영국 국립미술관 품에 오게 된 작품이다.

카를로 크리벨리(Carlo Crivelli, 1430년 ~ 1495년) / 1476년경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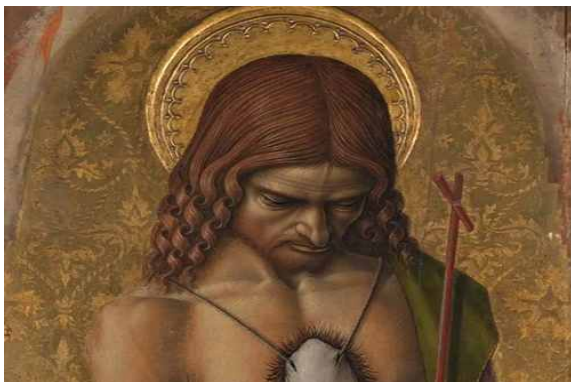
나무 위 템페라화, 138.5x40cm

런던 내셔널 갤러리(The National Gallery, London), 영국

광야와 야생에서 은둔자의 삶을 산 세례자 요한을 보여주기 위해 화가는 메마른 나무들과 돌로 뒤덮인 배경에 - 그러나 세례를 상징하듯 물이 흐르고 있다. -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세례자 요한을 묘사하였고, 세례자 요한은 십자가 모양의 지팡이와 'ECCE. AGNVS DEI QVI TOLLIT PECCATUM MONDI'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양' 예수를 보라.)라는 문구가 적힌 두루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계신다.

세례자 요한 오른편(우리가 보기에 왼편) 하단에 머리 부분이 붉은 방울새가 보이는데, 방울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 머리에 박힌 가시관의 가시 하나를 빼다가 예수님의 피에 머리가 붉게 물들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는 예수님의 수난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크리벨리는 양털 및 세례자 요한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힘줄과 근육 뿐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깊은 정신성까지 빼어나게 표현하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3주일: 상승대 주세의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12월 15일(주일)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군중현안협의회의

때·곳: 12월 17일(화) 11:00, 교구청 3층 회의실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감전성사의 해” -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